오륙도 칼럼

하이터바 메흐리니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한국의 치안’ 세계가 부러워하는 관광자원

“한국은 딱히 볼 게 없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관광을 오는 게 이해가 안 돼.”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했다는 뉴스를 본 어느 한국인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말에 나는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 보면 한국의 장점과 매력을 정작 한국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나는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이역만리를 건너 온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이다. 어릴 적 TV에서 본 한국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와 ‘겨울연가’에 꽂혀 대학을 한국어과에 입학했다. 수업이 끝나면 코이카(KOIC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만들어 준 한국어 도서관에서 한국 서적과 영상을 접하며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풀었다. 대학 졸업 후에는 한국어 교사로 3년간 초·중학생을 가르쳤고 우즈벡에 진출한 한국 건설회사 2곳에서 한국인 엔지니어들과 일한 적도 있다. 그러다 한국을 제대로 알고 싶어 2019년 10월 한국으로 유학을 왔고 현재 석사 졸업을 앞두고 있다.

그리 길지 않은 한국 생활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은 바로 ‘한국의 치안’이다. 원룸에서 혼자 사는 내가 새벽에 ‘겁도 없이’ 슬리퍼를 신고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지 않을까 싶다. 나는 그렇게 우즈벡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나이트 투어’를 자주 즐기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어느 설문조사에서도 한국에서 가장 만족하는 항목으로 ‘치안’을 꼽았다는 기사를 본 적 있다. ‘안전이 보장된 사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관광자원임을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어 안타깝다.

작년에 방학을 맞아 부모님과 가족을 만나러 고향 우즈벡으로 잠시 돌아간 적이 있다. 그런데, 우즈벡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내가 사는 원룸으로 택배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기다리던 선물이었지만 출국 날자와 택배 도착 날짜를 맞추지 못한 것이었다. 나는 5층짜리 원룸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거주자만 30명이 넘는다. “아깝지만 선물은 물 건너갔구나” 포기하고 우즈벡에서 한 달을 머문 뒤 방학이 끝날 때 쯤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집에 도착한 순간 나는 환호성을 질렀다. 문 앞에 택배상자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다. 주인 없는 집 앞에 택배상자가 무려 한 달간 방치되어 있었지만 그것을 손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복도에 CCTV가 설치된 것도 아니었다. 이것이야 말로 한국만의 장점과 매력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몇 달 전에는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비자카드와 외국인등록증이 들어있는 손지갑을 분실한 적이 있다. 한참 뒤에야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을 깨닫고는 허둥지둥 화장실로 갔는데, 누군가 내 지갑을 발견해 CCTV가 잘 보이는 곳으로 지갑을 옮겨 놓았다. 이런 일들은 한국인들에겐 당연할지 모르나, 나 같은 외국인들이 소름 돋아하는 ‘어메이징 코리아’이다.

한국에서의 이런 경험과 신뢰가 쌓이면서, 나는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다가 볼일을 보러 잠시 자리를 비울 때면 여느 한국인들처럼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그대로 놓아두는 습관이 생겼다. 이런 ‘K-문화’는 ‘K-팝’이나 ‘K-드라마’ 못지않게 외국인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렇다고 이런 경험이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아끼던 선글라스를 지하철에 놓고 내려 황급히 유실물 센터에 접수를 했지만 몇 달째 연락이 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경험하기 어려운 한국의 치안은 금수강산 못지않게 한국을 아름답게 만드는 문화적 자산이며 한국 사람들이 이를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다.

필자가 분실한 손지갑을 누군가 주워 CCTV가 보이는 장소로 옮겨놓은 모습.

도서관 여름방학특강 수강생 모집

구분	강좌명	운 영				교재비(재료비)	모집기간
		기간	시간(장소)	대상	강사명		
남구도서관	네짤, 다섯살 엄마아빠! 그림책 읽어봐요~	7.28.~8.18. (4회)	금/시청각실 16 : 00~17 : 30	4~5세 10팀(부모 1인 동반)	오은주	5,000	7/12 (수) 10시~
	레고LEGO 너, 레고알지?!	7.27.~8.31. (6회)	목/시청각실 16 : 00~17 : 00	6세(8명)	황혜숙	10,000	
			목/시청각실 17 : 00~18 : 00	7세(8명)			
	책 씹어먹는 미술시간	7.27.~8.17. (6회)	화,목/채움실 10 : 00~11 : 30	초등1~2학년 (15명)	고윤정	18,000	7/12 (수) 11시~
	그림책과 함께하는 아트메이킹	7.27.~8.31. (6회)	목/채움실 15 : 00~17 : 00	초등3~4학년 (15명)	우미정	25,000	
	초등 필수 꼭 알아야하는 문해력 파헤치기	8.2.~8.25. (8회)	수, 금/채움실 14 : 00~16 : 00	초등4~6학년 (20명)	백화경	-	
분포도서관	‘꿈’ 틀꿈틀~ 전래야 놀자	7.26.~8.23. (5회)	수(배움실) 16 : 00~18 : 00	6~7세 (12명)	안풍령	-	7/13 (목) 14시~
	Yippee!도서관에 온 디즈니 영어	7.27.~8.24. (5회)	목(배움실) 16 : 00~18 : 00	초등1~2학년 (15명)	정호영	5,000	
	우주과학 우주여행	7.29.~8.26. (5회)	토(배움실) 15 : 30~17 : 30	초등3~4학년 (15명)	강경화	25,000	7/13 (목) 14시 30분~
	반려동물 이야기	7.29.~8.26. (5회)	토(배움실) 10 : 00~12 : 00	초등4~6학년 (15명)	김미선	25,000	

* 자세한 사항은 남구도서관 홈페이지 참조

임차인 보호 위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 신 청 인 : 주거용·상가 건물을 임차하려는 분
- 열람내용 : 임대인의 미·체납액
- 준비서류
  - →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서(주택임차, 상가임차)
  - → 임대인·임차인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 (1) 계약일 이전 : 동의(동의서)
  - → (2) 계약일~임대차개시일 : 동의 불필요(임대차계약서)
- 신청방법 : 남구청 세무2과 및 남구 동 행정복지센터(2023.7.1.부터) 방문
- 문 의 : 남구청 세무2과(☎051-607-4245)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과세대상별로 고지됩니다.

- 납부기간 : 2023. 7. 16.~2023. 7. 31.
- 과세대상 : 주택(연세액의 1/2), 건축물, 선박
  - ▷주택분(부속토지 포함)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1/2씩 부과
  -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장(총 4장)의 고지서 발송
  - ▷분할납부 : 재산세액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기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 시 각 800원, 모두 신청 시 1,600원 세액 공제

재산세 문의처 (세무1과)
대연1, 5동 : 607-4204 / 대연3, 4동 : 607-4205
대연6동, 용당동 : 607-4202 / 감만동 : 607-4201
용호1,2동 : 607-4921 / 용호3,4동,문현1동 : 607-4925
우암동 : 607-4922 / 문현2~4동 : 607-4924

산따라 물따라 **7월 산행을 떠나요**

산악회	산행일시	산행장소	연락처
용호청산산악회	7월2일(일)	지리산 둘레길1코스	010-5011-1571
우일산악회	7월2일(일)	영덕 팔각산	010-3557-2847
용신산악회	7월9일(일)	지리산 둘레길9코스	010-6763-6743
아름다운동행산악회	7월9일(일)	진안 운일암	010-3831-6774
디딤돌산악회	7월15일(토)		010-5592-1179
백운산악회	7월16일(일)	영덕 용추계곡	010-3832-5971
산이좋아산악회	7월16일(일)	곡성 동악산	010-9329-3560
원뿌리산악회	7월16일(일)	금산 성치산	010-4564-7769

※ 산악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산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독자의 소리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와 지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 편집실 ☎607-4077, 1225honey@korea.kr

소소한 풍경에서 떠올린 행복

친척집에 볼일이 있어 잠깐 들렀다 오는 길에 낯선 집 담벽에 선명하게 붉게 핀 줄장미가 탐스럽게 피었다. 너무나 맑고 화사한 자태에 잠깐 가던 길을 멈추고 한동안 그곳에 서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곤 잠깐이지만 짧디짧은 백일몽을 꾸었다.

좁은 면적에 아담한 집을 짓고 잔디가 파릇파릇한 정원이 펼쳐지며 작은 분수대에선 물이 공중으로 뿜어대었다. 집앞엔 풀냄새가 싱그럽게 코를 찌르고 조그만 연못 안에 귀엽고 예쁜 금붕어 몇 마리가 헤엄치고 잔디밭에선 개구장이 아이들이 장난치고 씨름도 하면서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들린다. 나는 소박한 들꽃을 한 웅큼 뜯어와 옹기 화병에 꽂아 놓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행복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등 뒤에서 돌아봐주길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잠시 쉬어가다 보면 작은 일에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는 법이다. 그 집 앞에서 나는 잠시나마 즐거운 상상을 하며 행복을 느꼈다.

우정렬(대연동)

평화공원 아트벤치의 매력

UN기념공원 옆에 위치한 평화공원은 부산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2005년 10월에 조성됐다. 이 평화공원에 남구청에서 2년 전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하나인 ‘평화의 미술정원’ 사업을 펼쳐 공원 방문이 더욱 새로워져 산책하는 맛이 난다. 남구 소속 미술작가회 작가들이 참여해 ‘평화’와 ‘남구’를 주제로 평화공원 내 스토리가 있는 아트벤치를 설치해 놓아 거니는 즐거움이 매우 크다.

‘평화의 문’, ‘오륙도’, ‘행복한 꽃’ 등 총 아홉 점의 작품을 설치했는데 이 작품들은 공원을 방문한 관광객이나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쉼터이자 포토존으로 널리 사랑을 받고 있어 뿌듯하다.평화공원을 거닐면서 각양각색의 아트벤치 작품을 보는 즐거움은 남다르다. 보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창의적인 작품은 재미와 호기심을 듬뿍 안겨준다.

나는 수시로 평화공원에 들러 산책을 하고 아트벤치 작품을 구경한다. 부산박물관, UN기념공원, 부산문화회관 등과 연계해 거닐며 시간을 보내니 체력이 향상돼 무병장수의 발판이 마련되고 덩달아 오래 간직될 멋진 추억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어서 더없이 좋다. 그래서 하늘이 두 쪽 나도 남구에서 평생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다.

박정도(용호동)

UN기념공원 내 까마귀떼 관리를

남구에서 25년 넘게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뿌듯한 자부심은 오륙도·이기대·백운포·신선대가 있고 세계에서 하나 뿐인 UN기념공원과 매일 호흡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UN기념공원은 6·25전쟁 때 참전한 11개국의 전몰용사의 영령이 있으며, 부산시민은 물론이고 참전국을 비롯한 국내외 관광객의 참배와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나 또한 집에서 가깝고 잘 정돈되어 있어 가족·지인과 자주 방문하고 추모하고 있다.

그런데 영령의 숨결인 배인 이곳에 최근 까마귀떼가 잔디를 갉아먹거나 방문객의 뒤통수를 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매년 이맘 때 높은 나무에 둥지를 만들고 새끼를 낳아 기르면서 예민해졌기 때문이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시기인 만큼 혹시나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둥지를 제거하는 등의 대책이 있었으면 한다.

오민현(대연동)

하야리아 장교클럽과 욱일기의 해프닝

유현의 부산 유물이야기

공원역사관(옛 캠프 하야리아 장교클럽).

부산시민공원은 미군 공여지를 반환받아 도심형 공원으로 탈바꿈한 전국 최초 사례로 꼽힌다. 공원은 과거의 역사 공간을 일부 보존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구상하였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경마장과 해방 후 미군부대의 흔적 등이 남아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현재 공원역사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옛 캠프 하야리아 장교클럽이며, 2022년 시 기념물로 지정되었고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도 올라 있다. 그러나 2014년 공원 개장 당시 공원역사관은 큰 역사적 논란에 휩싸였다.

사건의 발단은 언론에 보도된 장교클럽 관련 기사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대다수 기사는 ‘장교클럽이 일제강점기 경마장의 마권판매소로 사용되었고 천장에는 욱일기 문양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었다. 그 후 한동안 시민들의 기억에서 잊혔으나 공원역사관이 오픈하면서 각종 신문에 ‘시민공원역사관에 욱일기가 웬 말’, ‘일제가 의도적으로 욱일기를 새겨넣고 미군이 이를 사용했다’라는 새로운 기억의 재구성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자 욱일기 관련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일부 보훈단체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시설 철거를 요구했다.

부산시장과 학술기관, 시민단체에서는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고 역사적 사실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보훈단체를 설득하였다. 첫째, 당시 항공사진을 살펴보았을 때 장교클럽이 건립된 시기는 1949년 이후이므로 일제강점기 건물이 아니며, 마권판매소의 위치는 이 건물이 아닌 다른 장소로 확인된다. 둘째, 천장 가운데 새겨진 붉은 별과 십자가 문양은 미 8군의 공식 견장이며, 그 주의를 둘러싼 붉은 선은 장식 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훈단체에서는 조금이라도 욱일기로 의심되는 문양이라면 공공기관 건물에 존치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차후 재논의를 위해 욱일기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천장 일부를 가리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

1년이 흐른 후, 어느 노신사가 낡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공원역사관으로 찾아왔다. 자신이 장교클럽 초창기 맴버로 일했으며 사진은 그와 동료들이 장교클럽이 지어진 1950년 1월에 찍은 기념사진이라는 것, 그리고 건물은 미국 민사처에서 지었으므로 일본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다. 다시 한번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씁쓸한 순간이었다. 최근 욱일기를 단 일본 군함이 부산항에 입항하여 화제가 되었다. 또한 일부 시민은 아파트에 일장기를 걸어놓아 논란이 되었다. 우리의 기억은 언제 다시 재구성될 것인가?

부산박물관 전시운영팀장

남구보건소 비만탈출 운동교실

- 운영 : 8월 8일~10월 10일
- 대상 : 체지방률(%) 경도비만 이상 주민 (선착순 20명씩)
- 신청 : 반드시 전화신청 ☎607-6422, 6420

*프로그램 총 16회, 참여우수자 인센티브 증정

수업명	종목 (수업방식)	장소	일시
건강한 ‘다이어트 근력UP’ 교실	소도구 근력운동 (대면)	대연1동행정복센터 4층 세미나실	매주 월, 수 14 : 00~15 : 00
따라 하기 쉬운 ‘홈트레이닝’ 교실	소도구 근력운동 (비대면)	자택 수업(ZOOM 줌 실시간 영상)	매주 화, 목 10 : 00~11 : 00
	소도구 필라테스 (비대면)	자택 수업(ZOOM 줌 실시간 영상)	매주 화, 목 19 : 00~20 : 00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77 유료광고 접수 4071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매품>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